

사무엘서

제 1 강

사무엘서 서론

역자: 이창배 (Ph.D., UCLA)

후원: 김경신 (NT Professor)



thirdmill

Biblical Education. For the World. For Free.

© 2019 by Third Millennium Ministries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for profit, except in brief quotations for the purposes of review, comment, or scholarship, without written permission from the publisher, Third Millennium Ministries, Inc., 316 Live Oaks Blvd., Casselberry, Florida 32707.

Unless otherwise indicated all Scripture quotations are from The Holy Bible, English Standard Version® (ESV®), copyright © 2001 by Crossway, a publishing ministry of Good News Publishers. Used by permission. All rights reserved.

ABOUT THIRDMILL

Founded in 1997, Thirdmill is a non-profit Evangelical Christian ministry dedicated to providing:

Biblical Education. For the World. For Free.

Our goal is to offer free Christian education to hundreds of thousands of pastors and Christian leaders around the world who lack sufficient training for ministry. We are meeting this goal by producing and globally distributing an unparalleled multimedia seminary curriculum in English, Arabic, Mandarin, Russian, and Spanish. Our curriculum is also being translated into more than a dozen other languages through our partner ministries. The curriculum consists of graphic-driven videos, printed instruction, and internet resources. It is designed to be used by schools, groups, and individuals, both online and in learning communities.

Over the years, we have developed a highly cost-effective method of producing award-winning multimedia lessons of the finest content and quality. Our writers and editors are theologically-trained educators, our translators are theologically-astute native speakers of their target languages, and our lessons contain the insights of hundreds of respected seminary professors and pastors from around the world. In addition, our graphic designers, illustrators, and producers adhere to the highest production standards using state-of-the-art equipment and techniques.

In order to accomplish our distribution goals, Thirdmill has forged strategic partnerships with churches, seminaries, Bible schools, missionaries, Christian broadcasters and satellite television providers, and other organizations. These relationships have already resulted in the distribution of countless video lessons to indigenous leaders, pastors, and seminary students. Our websites also serve as avenues of distribution and provide additional materials to supplement our lessons, including materials on how to start your own learning community.

Thirdmill is recognized by the IRS as a 501(c)(3) corporation. We depend on the generous, tax-deductible contributions of churches, foundations, businesses, and individuals. For more information about our ministry, and to learn how you can get involved, please visit www.thirdmill.org.

역자 서문

삼천년기 사역(Thirdmill = Third Millennium Ministries)은 성경에 충실한 기독교 교육을 전세계를 향해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기독교 지도자들이 자국에서 훈련받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돕고 있다. 삼천년기 사역은 제이니 필로우(Janie Pillow)와 리차드 프랫(Richard L. Pratt, Jr.) 박사에 의해 1997 년에 시작되었다. 삼천년기 사역은 영어, 아랍어, 중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등 5 개 언어(세계 인구의 총 42 퍼센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국어를 비롯한 다른 언어들(인도네시아어, 힌디어, 루마니아어, 프랑스어, 페르시아어, 그리스어, 암하라어, 텔루구어 등)은 삼천년기 사역자의 감수 아래 각 언어의 자원자들이 번역하여 올린 것이다.

본 강좌는 **사무엘서**를 다루는 총 3 강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 1 강은 **사무엘서 서론**으로 사무엘서의 역사적 배경과 디자인과 기독교인의 적용을 다룬다. 역사적 배경에선 책의 저자와 연대와 역사적 상황을 논의한다. 디자인에서는 책의 구조와 내용 그리고 목적을 논의한다. 기독교인의 적용에선 하나님의 언약들의 역학적 원리(하나님의 은택, 인간의 충성,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복과 저주)와 하나님의 나라의 삼중 단계(개시와 지속과 완성)에 비추어 사무엘서를 오늘의 삶에 적용하는 문제를 논의한다. 사무엘서는 고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윗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소망을 계속 갖도록 촉구할 뿐만 아니라 오늘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미래에 대한 모든 소망을 다윗의 위대하고 완전히 의로운 아들이신 예수님께 두도록 격려한다. 제 2 강은 **사무엘과 사울**이란 제목 아래 사무엘의 왕정 도입(삼상 1-7 장)과 사울 왕정의 실패(삼상 8-삼하 1 장)를 다룬다. 제 3 강은 **다윗 왕**이란 제목 아래 다윗 왕정의 지속(삼하 2-24 장)에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초기의 복들(삼하 2-9 장)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리신 후기의 저주들(삼하 10-20 장)과 다윗의 집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 제공되는 지속적인 은택(삼하 21-24 장)을 다룬다.

이 **사무엘서** 강좌를 통하여 성경을 더욱 사랑하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여 원래 의미를 찾아 삶에 적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람직한 변화가 일어나길 바란다. 양질의 원강의들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오자나 탈자가 있으면 지적해 주기 바라고 번역에 대한 건설적인 제안이 있으면 알려주기 바란다. 이 수준 높은 신학 강좌들의 원본 동영상의 한국어 더빙을 통해 전세계에 흩어져 사는 한국인들에게 전달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번역, 편집, 더빙 등 한국어와 관련된 사역에 자원해 동참하고 싶은 사람은 역자의 이메일 hesedlee@gmail.com 으로 연락주기 바란다.

이번 **사무엘서** 강좌의 번역은 김경신 교수님의 후원으로 이루어졌다. 김교수님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셨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신약 신학을 전공하셨고, 대신대학교를 비롯한 여러 강단에서 신약 신학을 가르치셨다. 김교수님은 모퉁이돌 선교회와 인연을 맺으시고 원문 연구에 매진하시며 약 15년에 걸쳐 북한어로 된 성경 번역(새누리성경)을 완성하셨다. 김경신 교수님과 김양순 사모님은 슬하에 3 남매 Esther, Maria, John 을 두셨다. 김교수님의 후원과 기도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사무엘서(The Book of Samuel)

제 1 강 사무엘서 서론(Introduction to Samuel)

목차(Contents)

I. 서론(Introduction)	1
II. 역사적 배경(Background)	3
A. 저자(Authorship)	3
1. 전통적 견해(Traditional Outlooks)	3
2. 비평주의 견해(Critical Outlooks)	5
3. 복음주의 견해(Evangelical Outlooks)	7
B. 연대(Date)	10
C. 상황(Circumstances)	14
III. 디자인(Design)	15
A. 구조와 내용(Structure and Content)	17
1. 사무엘의 왕정 도입(Samuel's Prelude to Kingship)	18
2. 사울 왕정의 실패(Saul's Failed Kingship)	21
3. 다윗 왕정의 지속(David's Enduring Kingship)	25
B. 중대 목적(Overarching Purpose)	28
IV. 기독교인의 적용(Christian Application)	38
A. 하나님의 언약들(Divine Covenants)	39
1. 사무엘의 왕정 도입(Samuel's Prelude to Kingship)	39
2. 사울 왕정의 실패(Saul's Failed Kingship)	40
3. 다윗 왕정의 지속(David's Enduring Kingship)	41
B. 하나님의 나라(Kingdom of God)	43
1. 개시(Inauguration)	48
2. 지속(Continuation)	48
3. 완성(Consummation)	49
V. 결론(Conclusion)	49

사무엘서(The Book of Samuel)

제 1 강 사무엘서 서론(Introduction to Samuel)

I. 서론(INTRODUCTION)

대부분의 우리는 종종 위대하고 고귀한 일을 하기 위해 나섰지만 결국 실패로 끝난 지도자들을 알게 된다.¹ 이런 일이 발생하면, 우리는 자주 미래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한다. 여러 면에서 이와 비슷한 일이 지금 우리가 사무엘서라고 부르는 구약 성경책을 처음 받은 고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어났다. 그들은 다윗 왕의 후손들이 그들의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의 통치를 땅 끝까지 확장할 것이라고 들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윗과 그의 집은 실패했고, 많은 이스라엘 자손은 미래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고 있었다. 사무엘서 저자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고 다윗과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에 많은 시련을 가져왔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다윗의 집이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큰 복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 세계로 확장할 것임을 분명히 재확인시켜 주려고 그의 책을 썼다.

이 강의는 **사무엘서** 강좌의 첫 번째 강의로 제목은 "사무엘서 서론"이다. 이번 강의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무엘서가 고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¹ The host of this series, **Dr. Thaddeus J. James, Jr. (Host)** is Vice President of Academic Affairs at Birmingham Theological Seminary. He holds an M.A. in Pastoral Leadership from BTS and a Ph.D. in Theology from Trinity Theological Seminary. In addition to teaching seminary students and supervising faculty, Dr. James serves as Director of the BTS Prison Initiative at Bibb County Correctional Facility, a program that offers Certificates in Practical Theology and/or M.A. degrees in Biblical Studies. He is Associate Minister and a Ruling Elder at Household of Faith Church (PCA) in Birmingham, and served as chair of the Association of Reformed Theological Seminaries (ARTS) Commission on Accreditation. Dr. James and his wife Yvonne are the parents of six children, ten grandchildren, and have been licensed therapeutic foster parents for more than 19 years.

다윗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소망을 계속 갖도록 촉구했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사무엘서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미래에 대한 모든 소망을 다윗의 위대하고 완전히 의로운 아들이신 예수님께 두도록 격려하는지도 볼 것이다.

계속 강의를 진행하기 전에, 우리는 오늘날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사무엘서를 한 권의 책이 아니라 두 권의 책으로 지칭하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가 **사무엘서**라고 했을 때 독자들에게 좀 이상하게 들렸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3 세기 오리겐과 4 세기 제롬의 작품들은 사무엘상과 사무엘하가 원래 분리되지 않은 한 권의 책이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처음으로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로 구분된 것은 아마도 칠십인역으로 알려져 있는 구약 성경의 고대 헬라어 역본(주전 3 세기경)에서 고대 두루마리의 분량에 맞추기 위한 불가피한 일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아는 한, 사무엘서를 두 권, 즉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로 나눈 최초의 **히브리어** 본문은 매우 늦은 주후 16 세기 초반경에 출판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고대 히브리인의 관행을 따라 사무엘 상하라고 하지 않고 사무엘서라고 부를 것이다. 우리는 특정한 장과 구절을 인용할 때만 사무엘상(삼상)과 사무엘하(삼하)라고 언급할 것이다.

“사무엘서 서론”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논의할 것이다. 첫째로, 우리는 사무엘서의 역사적 배경, 곧 누가 언제 이 책을 썼는지를 탐구할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사무엘서의 중요한 디자인, 곧 이 책이 어떻게 그리고 왜 기록되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셋째로, 우리는 기독교인의 사무엘서의 적용, 즉 이 책이 오늘의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갖는지를 고찰할 것이다. 그럼 먼저 사무엘서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몇 가지 기본적인 역사적 배경 문제를 살펴보자.

II. 역사적 배경(BACKGROUND)

우리는 역사적 배경의 세 가지 특징, 즉 저자, 연대, 당시 하나님의 백성의 상황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먼저 사무엘의 저자를 살펴보자.

A. 저자(AUTHORSHIP)

그리스도와 그의 1세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증언에 따라 기독교인들은 성령님께서 사무엘서를 영감하셨다고 올바르게 믿는다. 그래서 사무엘서는 누가 사무엘서를 썼든 간에 전 시대에 걸쳐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신적 권위를 갖는다. 그러나 동시에 성령님께서 한 인간 저자에게 이 책을 쓰도록 영감하셔서 저자를 포함한 고대 이스라엘 자손이 당대에 직면한 상황을 다루게 하셨다. 이 인간 저자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자기 백성에게 사무엘서를 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의 우리가 우리 삶에 어떻게 그것을 적용하기를 원하시는지 더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사무엘서의 저자를 탐구하는 데 있어서 먼저 우리는 고대의 전통적 견해부터 살펴볼 것이다. 그런 다음, 우리는 현대의 주류 비평주의 견해를 요약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번 강의에서 우리를 인도할 최근의 많은 복음주의 견해를 살펴볼 것이다. 우선 사무엘서의 저자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를 고찰해보자.

1. 전통적 견해(Traditional Outlooks)

사무엘서의 저자에 대한 고대 유대교와 기독교의 전통적인 견해는 전통적인 랍비들의 주석과 가르침의 기록인 **바벨론 탈무드**에 나타나 있다. 다양한 구약 책들에 대한 일련의 질문과 대답을 기록하고 있는 바바 바스라(Baba Bathra) 14b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을 읽는다.

사무엘은 자신의 이름을 갖는 책과 사사기와 룯기를 썼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고대 랍비들은 사무엘을 사무엘서와 사사기와 룻기의 저자로 보았다. 이러한 견해는 구약의 책들을 저명한 선지자와 관련 짓는 고대 유대교과 기독교의 관행을 반영한다.

탈무드의 주장은 고대에 널리 퍼져 있었지만, 이 견해를 뒷받침할 긍정적인 증거는 거의 없다. 이제 우리는 대상 29:29 이 “선견자 사무엘의 글”이라고 부르는 두루마리를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해야 한다. 그러나 “선견자 사무엘의 글”이란 표현은 대상 29:29 에 나란히 함께 나오는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처럼 사무엘의 예언들을 모아 놓은 비정경적인 글을 가리킬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삼상 25:1 이 사무엘의 죽음을 사무엘하에 보고된 많은 사건들 이전에 일어난 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사무엘의 글” 또는 이와 유사한 글에서 유래한 일부 자료가 사무엘서에 통합되었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선지자 사무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사무엘서의 저자라고 확신할 수 있다.

(와드[Herbert D. Ward] 박사)² 구약성경에 관한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너무나 많은 책들이 익명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저자가 누구인지 정말로 모른다. 우리는 대상 29:29 에서 사무엘과 나단과 갓이 그들의 예언 사역에 대한 기록을 남겼다는 단서를 얻는다. 그러므로 사무엘상하를 최종 형태로 만든 사람은 누구든지 심지어 사무엘 자신으로부터 유래한 원래의 자료에 접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무엘은 사무엘상 25 장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가 그의 이름을 가진 사무엘 상하를 모두 쓴 것이 아니었음이 분명하다.

² Dr. Herbert D. Ward is Professor of Biblical Studies at Covenant College in Lookout Mountain, GA.

우리 시대에는 사무엘서의 저자에 대한 고대의 전통적 견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대신, 많은 현대 해석자들은 이 문제에 대한 비평주의 견해를 조장했다. 비평주의란 성경의 완전한 권위를 거부하는 현대 학자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는 입장을 가리킨다.

2. 비평주의 견해(Critical Outlooks)

우리가 다른 강좌에서 논의했듯이, 대부분의 최근의 비평주의 해석자들은 마틴 노트의 관점에 의해 깊은 영향을 받았다. 노트의 저서 **신명기적 역사**(*The Deuteronomistic History*)는 1943년에 독일어로 처음 출간됐다. 이 책에서 노트는 룻기를 제외한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그리고 열왕기가 서기관이나 서기관 그룹에 의해 하나의 통일된 작품으로 완성되었다고 주장했다. 노트는 이 서기관이나 서기관들을 “신명기적 사가”라고 불렀다. 노트의 견해에 의하면, 이 신명기적 사가는 바벨론 유수 기간 동안 이 책들을 작성했다. 그리고 이 신명기적 역사 전체는 하나의 주된 목적을 갖고 있었다. 그것은 북 왕국 이스라엘과 남 왕국 유다에게 임한 국외 추방의 심판이 받아 마땅한 일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기록되었다.

이 구약 책들이 어휘, 문체, 신학적 관점에 있어서 유사하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래서 대체로 비평주의 학자들은 노트의 핵심적 관점을 시인했다. 그러나 더 최근에는 다수의 비평주의 학자들이 노트의 관점을 다양한 방식으로 수정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그들이 노트가 신명기적 역사에서 각 개별 책의 뚜렷한 특징들을 고려하지 못했음을 정당하게 주장해 왔다는 것이다.

우리는 또한 노트와 다른 비평주의 주석가들이 사무엘서에 식별 가능한 기존의 여러 문학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해 왔다는 것을 언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사무엘상 1-3장에 나오는 엘리와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에 대한 별도의 자료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사무엘상 4-6 장에 나오는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그 기저에 있던 독립적인 언약궤 이야기를 재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어떤 사람들은 사무엘하 6 장도 이 동일한 자료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많은 해석자들은 또한 사무엘의 최종 편집자가 사무엘상 7-15 장에서 기존의 친왕정 그리고 반 왕정 이야기들을 함께 엮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다른 비평주의 학자들은 사무엘하 9-20 장과 열왕기상 1-2 장에 여러 승계 이야기들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 견해에 의하면, 이 자료는 본래 다윗의 어떤 다른 아들이 아니라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유를 설명하였다.

이러한 혹은 이와 유사한 가상의 자료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들이 존재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집착은 자주 사무엘서를 심각하게 잘못 해석하도록 만들었다. 너무나 자주 이러한 관점들은 성경에 반대되는, 이스라엘의 신앙의 발전에 대한 생각을 반영해 왔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사무엘서를 정경으로 받아들인 구약 성경에 지금 있는 그대로 전체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손상시켰다는 점이다.

(해밀톤[James M. Hamilton] 박사)³ 그래서 학자들은 신명기에서 열왕기까지 살펴보며 정말로 거기에 존재하는 중요한 것을 보았다. 그들은 신명기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많은 어구들이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와 사무엘서와 열왕기 전반에 걸쳐 다시 사용된 것을 알았다. 이 책들 전체에 걸쳐 사용되고 재사용된 언어, 용어, 개념, 축적된 일종의 상투적인 이미지와 상투적인 어구들이 많이 있다. 정말 거기에 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이 현상을 설명하느냐 하는 것이다. ... 본문들이 스스로 주장하는 바를 실제로 준수하고 고수하는 자료에 접근하는 방법은 이

³ **Dr. James M. Hamilton** is Associate Professor of Biblical Theology at The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and Preaching Pastor of Kenwood Baptist Church.

자료를 보면서 신명기 자체가 여러 곳에서 이 자료를 모세가 기록했다고 주장하고,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와 사무엘서와 열왕기가 모두 모세의 심오한 중요성을 증언한다고 말하는 것일 것이다. 그래서, 나는 우리가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 모든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리고 모세 뒤에 온 이 후대 저자들이 신명기에서 배운 언어와 개념을 채택하여 본질적으로 신명기에 기초하고 있는 “렌즈”를 통해 세상을 묘사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것이 우리를 놀라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것이 내가 이 자료를 설명하는 방법이다. 나는 신명기적 역사라는 가설보다 신명기에서 유래한 이 모든 언어와 이미지를 설명하는 더 좋고 더 성경적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본문이 모세가 심오한 영향을 주었다고 암시하는 그 영향을 모세가 실제로 주었고, 모세 뒤에 온 후대 성경 저자들이 모세가 사물을 묘사한 방식에 깊은 영향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더 그럴듯하다고 생각한다.

3. 복음주의 견해(Evangelical Outlooks)

복음주의 견해의 특징은 성경 자체의 증언에 따라 가능한 한 많이 저자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취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무엘서나 구약의 다른 부분이나 신약이나 그 어디에도 사무엘서의 저자를 밝히지 않는다. 사무엘서는 익명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는 누가 사무엘서를 썼는지 확실히 말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무엘서의 내용을 통하여 그 저자에 대한 적어도 두 가지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

우선, 우리는 사무엘서의 저자가 자료들의 편집자였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것은 그가 앉아서 자신의 책을 **새롭게**, 즉 완전히 처음부터 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자료와 이전에 쓰여진 자료를 능숙하게 엮어 자신의 책을 작성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비평주의 학자들의 자주 매우 사변적인 견해를 피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열왕기와 역대기 같은 다른 역사서들이 종종 그 저자들이 참고하며 인용한 문헌을 밝히고 있다는 것을 안다. 사무엘서의 저자도 마찬가지다.

최소한 삼하 1:18 은 이전에 기록된 자료인 "야살의 (두루마리) 책"을 명시적으로 언급한다. 수 10:13 도 동일한 자료를 언급한다. 게다가 사무엘하 22 장과 시편 18 편 사이의 유사점들은 사무엘서 저자가 잘 알려진 "다윗 왕의 궁중 시편"을 그의 책에 포함시켰음을 강력히 시사한다. 더구나 삼하 23:1-7 을 소개하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란 제목은 사무엘서 저자가 다윗의 궁중의 기존의 공식 기록에서 따온 것임을 나타낸다. 이러한 예들은 다른 많은 성경 저자들처럼 사무엘의 저자가 자신의 책을 작성할 때 기존의 문서 자료를 사용했다는 것을 암시한다.

사무엘서 저자가 다양한 자료를 편집한 것을 아는 것은 여러 면에서 책의 해석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요하다. 예를 들어, 그것은 우리가 사무엘서의 여러 문학적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여러 구절들이 상당히 다른 문학적 스타일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가 어렵다. 적어도 이런 문체의 다양성 중 일부는 저자가 다른 자료들을 인용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그의 자료 사용은 또한 사무엘서의 줄거리나 플롯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때때로 사무엘서는 단락들이 서로 꽤 단절된 것처럼 보인다. 자료들의 사용은 또한 사무엘서가 가끔 비슷한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외에도, 사무엘서 저자의 문서 자료에 대한 의존은 책에 나오는 특정한 시간의 언급을 명확하게 한다. 적어도 7 회에 걸쳐 사무엘서는 어떤 상황이 "오늘까지" 계속되었다고 언급한다.⁴ 다른 강좌들에서 보았듯이, 이

⁴ 역자 주: Even-Shoshan 의 히브리어 성구 사전(453 쪽)에 의하면 **הַיּוֹם מֵיּוֹם הַזֶּה** [아드 하움

같은 표현은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열왕기에도 나온다. 왕상 8:8 과 같은 일부 사례에서 "오늘까지"라는 표현은 분명히 열왕기의 최종 저작 시점이 아니라 이전 자료의 시점을 가리킨다.⁵ 이런 이유로 그리고 이와 비슷한 이유로, 우리는 사무엘서를 연구할 때 저자가 기존의 문서 자료들을 편집하여 책에 포함시켰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사무엘서 저자가 자료들의 편집자였음을 인정하는 것 외에도, 우리는 또한 그가 고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음을 확신할 수 있다. 우리는 저자가 성경, 야살의 책, 궁중 기록과 같은 문서 자료를 접할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안다. 고대에서 이런 종류의 문헌은 고위 귀족들과 레위인들만 이용할 수 있었다. 그래서, 사무엘서 저자는

하제]는 사무엘상에서 9 번, 즉 삼상 5:5; 6:18; 8:8; 12:2; 27:6; 29:3, 6, 8; 30:25 에 나오고 사무엘하에서 4 번, 즉 삼하 4:3; 6:8; 7:6; 18:18 에 나온다. 개역개정은 삼하 18:18 의 경우 "이제까지"로 번역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구절들의 경우 "오늘까지"로 번역했다. Cindy Sawyer (Director of Curriculum)에 의하면, 이 강의에서 말하는 일곱 번의 "오늘까지"는 저자/내레이터가 사용한 것으로 삼상 5:5; 6:18; 27:6; 30:25; 삼하 4:3; 6:8; 18:18 에 나온다. Scott Simmons (Director of Professor Relations)에 의하면 나머지 6 번의 경우(삼상 8:8; 12:2; 29:3, 6, 8; 삼하 7:6)는 등장 인물이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므로 포함되지 않았다. "As I understand your question, it has to do with the phrase "to this day" in the following verses: 1 Sam 8:8; 12:2; 29:3, 6, 8; 2 Sam 7:6, and why they are not included in the list of other 7 instances of "to this day" included in the lesson. In all of these instances, the phrase "to this day" occurs in a quote of someone speaking to someone else: 1 Sam 8:8 (Lord), 1 Sam 12:2 (Samuel), 1 Sam 29:3,6 (Achish), 1 Sam 29:8 (David), and 2 Sam 7:6 (Lord). Because these instances were included in what people said to others, the "this day" refers to the date that the person spoke and not the date of the composition of Samuel (or of his sources). When these words are written by the author/narrator, then "this day" would refer to the time period that the author (or his source) published his book for his readers. I believe that's why these verses were not included with the other 7 verses in the lesson."

⁵ 역자 주: [왕상 8:7-9 개역개정] 7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8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 곳에 있으며 9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렘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이거나 지도자들을 가까이서 직접 섬기는 자였음이 틀림없다.

사무엘서 저자의 사회적 지위는 우리가 사무엘서를 탐구할 때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기대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사무엘서 저자는 이스라엘의 다른 지도자들을 위해 글을 쓰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다는 것이 곧바로 분명해진다. 그는 평범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직접 읽도록 그의 책을 쓰지 않았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문학이 널리 출판되고 보급되지 않았다. 설령 사무엘서의 두루마리들이 널리 보급되어 있었다고 할지라도,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들을 읽을 수 없었을 것이다. 사무엘서에 익숙해지고 그 내용을 평범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에 전파하고 적용하는 것은 귀족, 레위인, 장로 및 기타 지도자들의 임무였다.

이 외에도, 사무엘서 저자가 다른 지도자들을 위해 글을 쓴 지도자였다는 사실은 그의 책의 백성에 대한 관심을 올바르게 평가하는데 도움이 된다. 사무엘서는 분명히 평범한 남자와 여자들 그리고 아이들이 매일 직면하는 여러 도전들을 다루었다. 그러나 사무엘서 저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전체가 직면한 국가의 정치 및 종교 문제에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그의 책을 해석할 때 우리는 이런 종류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 사무엘서의 저자를 살펴보았으므로, 이제 우리는 역사적 배경의 두 번째 차원인 최종 연대 문제를 다룰 것이다. 사무엘서는 언제 기록되었는가?

B. 연대(DATE)

우리는 이미 해석자들이 사무엘서의 연대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고대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은 사무엘서의 연대를 책이 전하는 사건들의 시대에 가장 가까운 주전 10 세기 경으로 보았다. 이와 대조적으로, 대부분의 비평주의 학자들은 사무엘서가 바벨론 유수 기간 동안

최종적 형태에 도달했다고 주장한다. 사실, 사무엘서가 언제 완성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식별할 수 없다. 그러나 많은 구약의 책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무엘서 저자가 그의 책을 완성한 때에 대하여 가능한 가장 빠른 시기와 가능한 가장 늦은 시기를 정할 수 있다.

사무엘서가 기록된 때로 볼 수 있는 가장 늦은 시기부터 시작해보자. 이 시한을 결정하는 최선의 방법은 이스라엘의 제 1의 역사라고 불리는 곳에 있는 사무엘서의 위치에 주목하는 것이다. 이 제 1의 역사는 롯기를 제외하고 창세기에서 열왕기에 기록된 역사이다. 이 책들은 함께 연동 사슬을 형성하며 각 책은 이전 책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하며 계속 나아간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등 처음 5 권은 모세 시대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제 1의 역사의 사슬에서 초기 연결 고리를 형성한다.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등 나머지 책들은 이 역사의 후속 신명기적 부분을 형성한다. 이 책들은 신명기의 신학적 관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여호수아서는 모세의 죽음으로 시작하여 여호수아의 죽음까지 계속된다. 사사기는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시작하여 계속 우리를 앞으로 인도한다. 사무엘서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의 등장으로 시작해서 다윗의 통치로 끝난다. 열왕기는 사무엘서가 끝나는 곳에서 암시된 다윗의 죽음으로 시작해서 바벨론 유수로 끝난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열왕기의 처음 장들과 비교했을 때,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해진다. 그것은 열왕기의 저자가 사무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다윗의 생애에 대한 기록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요인은 사무엘서가 열왕기가 기록되기 전에 완성되었어야 했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한다.

이 관찰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제 열왕기가 기록되었는지를 거의 확실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열왕기는 다윗 왕의 후손 여호야긴이 주전 561년 바벨론의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을 전하는 왕하 25:27-30로 끝난다. 게다가, 열왕기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기원전 538년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본토로 돌아온 것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합리적으로 열왕기가 기원전 561 년에서 기원전 538 년 사이에 기록되었다고 확신할 수 있다. 그리고 사무엘서가 열왕기보다 먼저 완성되었기 때문에, 사무엘서가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가장 늦은 시기는 바벨론 유수가 끝나기 전인 주전 538 년이라고 결론을 내려도 무방하다

(아버내시[Andrew Abernethy] 박사)⁶ 사무엘상과 사무엘하가 언제 작성되었고, 언제 최종 형태에 도달했는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 성경 전체에 비추어 사무엘 상하를 보면 사무엘서가 마지막 형태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있는 가장 늦은 시기를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몇 가지 징후가 있다. 우리가 역대상을 보면, 그 책은 실제로 사무엘 상하로부터 상당히 많은 내용을 가져왔고, 사무엘 상하에 대한 지식을 전제하고 있다. 역대기 상하는 이스라엘 자손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후포로기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말할 수 있는 것은 사무엘서가 분명히 후로포기 이전에 최종 형태로 있었다는 것이다. ... 그러나 우리는 또한 성경 전반에 걸쳐서 사무엘 상하에서 보게 되는 여러 요소를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다른 징후들을 볼 수 있다. 시편 89 편에는 다윗 언약에 대한 지식이 반영되어 있다. ... 그러므로 분명히 우리가 사무엘 상하에서 볼 수 있는 전승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 이 전승에 대한 인식은 확실히 전포로기, 포로기, 그리고 후포로기 동안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책의 최종 형태가 언제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우리가 최대한 말할 수 있는

⁶ **Andrew Abernethy, Ph.D.** is Assistant Professor of Old Testament at Wheaton College & Graduate School.

것은 사무엘서가 후포로기 이전에 완성되었다는 것이다.

바벨론 유수가 가능한 가장 늦은 연대임을 염두에 두고, 이제 우리는 사무엘서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가장 이른 시기를 다루어 볼 것이다. 곧 보게 될 것이지만, 사무엘서의 내용은 책이 분열 왕국 시대보다 더 일찍 기록될 수 없었을 것임을 강하게 시사한다.

성경이 말해주듯이 주전 930 년에 여로보암 1 세는 이스라엘의 북쪽 지파들을 이끌고 다윗의 집에 반란을 일으켰다. 그의 반란은 남 왕국 유다와 나란히 북 왕국 이스라엘(자주 에브라임으로 불리기도 함)이 생기는 계기가 되었다. 여러 번 사무엘서 저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두 왕국으로 분열된 것을 알고 있었음을 암시했다. 예를 들어, 삼상 11:8 은 "이스라엘 사람과 유다 사람"을 구별한다. 삼상 18:16 은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했다."고 논평한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는 삼하 5:5 에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는 것을 읽게 된다. 삼하 12:8 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스라엘과 . . . 유다"를 주셨다고 말한다. 삼하 21: 2 은 사울의 "이스라엘과 유다를 위한 . . . 열심"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삼하 24:1 에서 우리는 모든 지파가 "이스라엘과 유다"로 묘사되는 것을 본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이러한 구분이 반복된다는 것은 사무엘서 저자가 주전 930 년에 이스라엘과 유다로 분열되기 전에 그의 책을 썼을 가능성이 없음을 강력히 시사한다.

이 모든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우리는 사무엘서가 완성될 수 있는 가장 이른 시기가 주전 930 년 이후 분열 왕국 시대 중 어느 때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가능성이 있는 가장 늦은 연대는 주전 538 년 이전의 바벨론 유수 기간 중 어느 때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무엘서의 저자와 연대를 고찰했다. 이제 우리는 역사적 배경의 또 다른 특징인 책이 기록될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직면한 상황을 다룰 것이다.

C. 상황(CIRCUMSTANCES)

성경을 접할 수 있는 지도자로서 사무엘서 저자는 자신과 청중이 직면한 상황이 신앙의 큰 위기를 초래했다는 것을 매우 잘 알고 있었다. 한편으로, 그는 그들의 역사를 알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에게, 그리고 나중에 노아에게, 그분을 섬기며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부르시어 이 세계적인 사명을 완수하는데 앞장서라고 하셨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임명하시어 자기 백성을 단결시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확장될 땅에 두게 하셨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그의 집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영원한 왕조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이 그들의 목적을 수행하도록 인도하게 하셨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사무엘서 저자가 책을 쓸 때 하나님의 백성이 직면한 상황은 다윗의 집에 두었던 소망과 잘 맞지 않았다. 확실히, 분열 왕국과 바벨론 유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끔찍한 상태에 대한 많은 비난이 돌아다녔다. 그러나 성경은 단도직입적으로 그 책임을 다윗의 집의 죄악, 특히 그들의 우상숭배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탓으로 돌린다. 왕상 11:29-40 과 왕상 12:1-24 과 같은 단락은 분열 왕국에 대한 책임의 무게를 다윗의 집에 직접 두고 있다. 그리고 왕하 20:12-19 과 21:10-15 과 같은 단락은 바벨론 유수도 역시 일차적으로 다윗의 집의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암시한다.

다윗의 집의 실패는 하나님 백성의 신앙을 뿌리째 뒤흔들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의 소망을 짓눌러 버리자, 그들은 어떻게 다윗의 집을 계속 신뢰할 수 있을지 궁금해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들에게 등을 돌리신 것은 아닌가? 그들이 내내 이렇게 잘못된 상태로 계속 있을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사무엘서 저자를 부르시어 그의 책을 쓰도록 하신 것은 바로 이런 괴로운 상황 가운데서였다. 그는 다윗의 집에 대한 이스라엘의 소망을 새롭게 하기 위해 책을 썼다.

지금까지 사무엘서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았으므로, 이제 우리는 이

강의의 두 번째 주제인 사무엘서의 디자인을 다룰 것이다. 사무엘서 저자는 어떻게 그의 책을 만들었는가? 저자는 그와 그의 원래 독자들이 직면한 상황을 다루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것의 내용을 어떻게 배열했는가? 그리고 그의 책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떤 종류의 소망을 주었는가?

III. 디자인(DESIGN)

우리가 사무엘서의 디자인에 접근할 때, 우리는 저자가, 말하자면, 두 세상 사이에 서 있었음을 명심해야 한다. 그는 그가 묘사한 사건들의 세상과 그와 그의 원래 독자들이 사는 세상 사이에 서 있었다. 그는 과거에 일어난 일을 사실적으로 설명하는 데 전념했다. 그러나 그는 또한 그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방식으로 과거에 대한 글을 쓰는 데 전념했다. 불행히도, 복음주의 해석자들은 종종 사무엘서를 다루면서 이런 구별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더 나아가기 전에, 우리는 잠시 시간을 내서 사무엘서의 디자인에 미친 이 두 가지 영향을 설명해야 한다.

한편으로, 성령의 영감 아래 사무엘서 저자는 자신의 책을 쓰기 오래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진솔한 설명을 독자들에게 주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의 책에 기록된 역사적 사건들의 세상인 소위 "그 세상"에 대해 썼다. 그가 전한 첫 사건은 삼상 1:1-28 에 기록된 사무엘의 탄생이었다. 성경과 고고학적 증거들은 사무엘이 주전 1070 년경에 태어났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가 전한 마지막 역사적 사건은 삼하 23:1-7 에서 다윗의 마지막 말을 회상하는 것이다. 이 유언은 주전 970 년경 다윗이 죽을 무렵에 행해진 그의 마지막 공식 궁중 선언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사무엘서는 주전 1070 년경부터 주전 970 년경까지(약 한 세기 동안)의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제공한다.

구약 시대에 이 세기가 하나님 나라의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지 과대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것은 이스라엘에서 중대한 과도기였다. 사무엘이 태어날 무렵, 이스라엘은 사사들과 레위인들의 실패한 지도력 아래 혼란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다윗이 마지막 말을 전할 무렵, 하나님은 다윗과 그 후손들을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다스리는 영원한 왕조로 세우셨다. 사무엘서 저자는 어떻게 수많은 중요한 사건들이 이러한 극적인 변화를 이스라엘에 가져왔는지 설명하기 위해 책을 디자인했다.

방금 말했듯이, 사무엘서에 기록된 사건들은 모두 소위 “그 세상”의 일부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사무엘의 저자는 또한 자신과 원래 독자들이 사는 시대와 상황을 다루기로 결심했다. 우리는 이것을 “그들의 세상”이라고 부를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의 책에 기록된 역사적 시기가 한참 지난 후에 있는 저자와 그의 독자들의 세상이기 때문이다. 분열 왕국 시대나 바벨론 유수 기간에 사무엘서 저자는 “그 세상”에서 일어났던 일이 “그들의 세상”에서 갖는 의미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르치기 위해 “그 세상”의 일에 대하여 책을 썼다. 그리고 이 목표는 그의 책의 디자인에 깊은 영향을 끼쳤다. 그는 과거에 대해 딱딱하고 초연한 기록을 쓰기보다는, 그의 이야기가 그의 직접적인(원래) 독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에 대해 말하도록 구성했다.

다른 성경 저자들처럼 사무엘서 저자도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이 작업을 했다. 첫째로, 그는 원래 독자들에게 역사적 배경, 즉 그들이 당대에 직면한 현실의 역사적 기원을 제공했다. 둘째로, 그는 책에 등장인물을 묘사하며 독자들에게 모방하거나 거부할 모델을 주었다. 셋째로, 그는 “그 세상”에서 일어난 많은 사건에 대해 쓰며 그것이 어떻게 “그들의 세상”에서 그의 독자들이 겪는 경험의 모형이었는지를 보여주었다. 이런 식으로 그는 원래 독자들이 직면한 도전에 대한 지침을 제공했다.

우리는 두 단계로 나누어 사무엘서의 디자인을 탐구할 것이다. 첫째로, 우리는 사무엘서의 거시 구조와 내용을 소개할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이런 구조와 내용이 어떻게 사무엘서의 중대 목적을 드러내는지 볼 것이다. 그럼 먼저 사무엘서의 구조와 내용에 대한 개요를 살펴보자.

A. 구조와 내용(STRUCTURE AND CONTENT)

사무엘서는 너무 복잡해서 많은 세부 사항에서 길을 잃기 쉽다. 길을 잃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고도로 선별적이고 얼마나 능숙하게 배열되었는지 볼 수 없다. 실상을 말하면, 사무엘서 저자는 소수의 인물과 사건에 대해서만 썼고,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것들을 세심하게 배열했다. 사무엘서의 이러한 특징을 더 많이 알수록, 우리는 그 원래의 의미와 그것을 오늘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대체로 하나님의 영은 사무엘서 저자가 사무엘, 사울, 다윗이란 세 중심 인물에 초점을 맞추도록 인도하셨다. 그분은 또한 저자가 이 등장인물들 사이에 많은 논리적인 연관성을 도출하도록 인도하셨다. 저자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왕정 시대로 이스라엘을 인도할 인물로 임명하신 사실로 책을 시작했다. 그런 다음, 그는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어떻게 실패했는지에 집중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권과 왕조를 그분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확장할 도구로 세우셨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세 가지 부분은 함께 종합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사사 시대에서 다윗 왕정의 시대로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저자의 일관된 평가를 드러내고 있다.

(오스왈트[John Oswalt] 박사)⁷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의 문학적 구조는 정말 세 명의 통치자, 혹은 굳이 말하면 세 명의 위인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먼저 사무엘이 핵심 인물이다. ... 그런 다음, 사울이 핵심 인물이 된다. 그리고 다윗이 무대로 등장한다. ... 그러나 사울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다윗을 추격하는 동안 계속 주역으로 있다가 마침내 사무엘상의 끝부분에서

⁷ Dr. John Oswalt is the Visiting Distinguished Professor of Old Testament at Asbury Theological Seminary.

죽임을 당한다. 그런 다음 사무엘하는 다윗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따라서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에 구조를 주는 것은 바로 이 세 인물이다.

사무엘서의 이러한 강조를 염두에 두면, 우리는 사무엘서가 거시적으로 세 개의 주요 부분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부분은 사무엘의 왕정 도입(삼상 1-7 장)을 다루고, 두 번째 부분은 사울 왕정의 실패(삼상 8-삼하 1장)를 다루고, 세 번째 부분은 다윗 왕정의 지속(삼하 2-24장)을 다룬다. 그럼 먼저 사무엘의 왕정 도입에 대해 살펴보자.

1. 사무엘의 왕정 도입(Samuel's Prelude to Kingship, 1 Samuel 1-7)

먼저 지적할 것은 저자가 사무엘을 이상화했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저자는 사무엘을 하나님의 기적의 선물이자 모범적인 도덕적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칭송했다. 책에 따르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자신을 축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 온 이스라엘을 축복하셨을 정도로 이상적이었다. 물론 저자와 원래의 독자들은 모두 성경과 혼한 경험을 통해 사무엘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사무엘의 도덕적 성격의 복합성을 알고 있었다고 확신할 수 있다. 그러나 저자는 사무엘의 결점을 지적하기보다는 사무엘과 그의 하나님에 대한 봉사를 의도적으로 높였다. 저자가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먼저 사울에게 기름 붓고 다음으로 다윗에게 기름 부음으로써 이스라엘에 왕정을 도입하는 사람으로 사무엘을 보내시고, 준비시키시고, 승인하셨는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a) 사무엘의 초창기(삼상 1:1-2:11 *Samuel's Earlier Years*)

이 고도로 이상화된 사무엘에 대한 묘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첫째로, 우리는 삼상 1:1-2:11 에서 사무엘이 태어나서 젖을 뗀 때까지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을 본다. 이 부분에서 저자는 사무엘의 출생이 경건한 어머니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응답이며 그가 이스라엘을 위한

새로운 시대를 특징짓는 인물임을 강조했다.

사무엘서는 엘가나라는 사람으로 시작한다. 그는 한나와 브닌나라는 두 명의 아내를 두었다. 브닌나는 많은 자식이 있었지만 한나는 자식이 없었다. 그래서 브닌나는 한나를 업신여기며 괴롭혔다.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며 여호와께서 아들을 주시면 그를 여호와께 바쳐 그의 평생 동안 여호와를 섬기도록 하겠다고 기도하고 맹세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기적으로 그녀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이스라엘은 혼돈과 타락으로 특징지어진 시기인 사사 시대의 허탈감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사무엘의 등장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왕을 보내려 하신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우리는 이 소망을 삼상 2:10 에서 본다. 여기서 한나는 사무엘이 태어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며 다음과 같은 말로 끝마친다.

(삼상 2:10 개역개정)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이스라엘이 외적들에 의해 내적 혼란과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한나는 놀라운 믿음을 보여주었다. 사무엘의 기적적인 탄생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늘에서 우레로 치실" 것이라는 확신을 그녀에게 주었다. 이 외에도, 한나는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심"으로써 그분의 왕권을 이스라엘의 국경 너머로 "땅 끝까지" 펼치실 것이다. 그러나 한나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전세계로 확장하실 것이라고 믿었는지도 주목하라. 그것은 "그분의 왕에게 힘을" 주심으로써 그리고 적들에 대한 승리를 통해 "그분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심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사무엘 시대 이전에는 이스라엘에 인간 왕이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한나의 찬양의 말을 통해 저자는 사무엘의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가장 중요한 공헌을 소개했다. 사무엘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을 왕정 시대로 인도했다.

b) 지도력의 전환(삼상 2:12-7:17 Transition in Leadership)

사무엘의 왕정 도입의 두 번째 부분은 삼상 2:12-7:17 이다. 여기서 우리는 엘리와 그의 아들들로부터 사무엘에게로 지도력이 전환되는 것에 대한 설명을 본다. 사무엘뿐만 아니라 엘리와 그의 아들들도 모두 레위 지파 출신이었다. 사사기의 마지막 장들은 이 무렵 많은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불신실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하도록 이끌었다고 우리에게 말해준다. 이것은 분명히 실로에 있는 언약궤 앞에서 섬기는 엘리와 그의 아들들에게도 해당되었다. 그러나 지도력이 사무엘에게로 전환된 것은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시대를 의미했다. 저자는 이 장들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레위인[제사장]의 이 중심적 권위가 전환되도록 작정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사무엘은 그의 하나님께 대한 겸손하고 의로운 봉사로 인해 온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레위 출신 선지자로서 인정받는 승귀를 얻었다. 사무엘이 이런 지위에 이르자, 그는 이스라엘 국가를 그들 역사의 새로운 시대인 왕정 시대로 들어서게 했다.

(아코지예람[Humphrey Akogyeram] 박사)⁸ 사사기는 전쟁이나 그들 사이의 분쟁 해결 등을 해야 할 때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시대에 일어난 사건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흥미로운 책이다. 그러나 삼손이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이고 바로 사무엘서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무엘 당대에는 사사가 없었다. 그래서 그때는 지도자가 없는 나라 같았다. 그러나 사무엘서가 들어오면서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나 이스라엘 자손의 지도자가 되었는지 이야기한다. 그런

⁸ Rev. Dr. Humphrey Akogyeram is a professor at Good News Theological Seminary in Accra, Ghana.

의미에서 사무엘은 이전의 사사들과 다소 비슷한 역할을 하며 전쟁에서 백성을 이끌 수 있었고 분쟁이나 다른 것들을 해결할 수 있었다.

사무엘서 저자는 사무엘상 1-7 장에서 사무엘의 왕정 도입을 설명한 후에, 사무엘상 8 장에서 사무엘하 1 장까지 사울 왕정의 실패를 다룬다.

2. 사울 왕정의 실패(삼상 8 장-삼하 1 장, *Saul's Failed Kingship*)

전체적으로 저자는 사울에 대해 현저하게 부정적인 인물 묘사를 줌으로써 사무엘과 사울 사이에 뚜렷한 대조를 보여준다. 우리는 성경과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죄인의 삶이 완전히 파멸되지 않도록 최악의 죄인들에게도 일반 은총을 베푸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저자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셨다는 것과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기름부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는 또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지원과 그의 통치 초기에 군사적 승리로 복을 주신 것을 설명했다. 그러나 저자는 주로 사무엘이 사울에 대한 지지를 끝내고 그를 반대하기 시작한 이유에 초점을 맞추었다. 사울은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와 그의 가문에 임했다. 사울의 죄는 너무나 커서 악령이 그를 미치게 하였다. 사울은 다윗을 끈질기게 뒤쫓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다. 사울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인 인물 묘사는 사무엘서의 원래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세계적인 나라에 대한 그들의 소망이 사울의 가문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미래에 대한 그들의 소망이 하나님께서 사울 대신 지지하신 왕, 즉 다윗 이외의 어떤 왕에게도 있어서는 안 된다.

a) 사울의 초창기(삼상 8-15 장 *Saul's Earlier Years*)

거시적으로 보면, 사울 왕정의 실패를 다루는 삼상 8 장-삼하 1 장은 사무엘의 왕정 도입을 다루는 삼상 1-7 장과 병행되는 식으로 두 개의 주요

부분으로 나뉜다. 그것은 먼저 삼상 8-15 장에서 사울의 초창기, 곧 다윗이 사울의 삶에 영향을 끼치기 전의 일들을 다룬다.

간단히 말해서, 이 장들은 사울이 어떻게 사무엘의 지원으로 왕이 되고, 이스라엘 지파들을 통합하고, 이스라엘 적들을 상대로 몇 가지 중요한 승리를 이끌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사울은 하나님에게서 돌아섰고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에게 문제를 일으켰다. 사실, 사울이 모세의 율법과 사무엘의 예언적인 지시를 너무나 노골적으로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와 그의 계보 전체를 왕위에서 배제하라고 명령하셨다. 삼상 15:28-29 에서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가문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는 것을 들어보라.

(삼상 15:28-29 개역개정) 28 사무엘이 그[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29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사울로부터 일시적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떼어 내신 것이 아니다. 사무엘이 선언했듯이, 하나님은 그것을 "사울보다 더 나은 이웃에게" 주실 작정이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신⁹ 하나님은 "후회를 하거나" "(종종 번역되는 것처럼) 회개를 하는" 사람과 달리 빈말을 하시거나 뜻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다.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은 사울의 집에 대한 거부를 결코 반복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리고

⁹ לְעֹדֹת יִשְׂרָאֵל [네차흐 이스라엘]은 다양하게 번역된다. NIV, ESV, NASB, ISV 등은 "the Glory of Israel"로 번역하고(새번역, 우리말성경: "이스라엘의 영광"), HCSB/CSB 는 "the Eternal One of Israel"로 번역하고(쉬운성경: "이스라엘의 영원하신 분"), YLT 는 "the Pre-eminence of Israel"로 번역한다(개역, 개역개정: "이스라엘의 지존자"). KJV/ERV/NKJV 는 "the Strength of Israel"로 번역한다. 공동번역은 "이스라엘을 비추시는 이"로 번역하고, 현대어성경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번역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보좌를 다른 사람, 즉 다윗에게 주기로 하신 자신의 결정을 결코 번복하지 않으실 것이다.

*b) 지도력의 전환(삼상 16 장-삼하 1 장 **Transition in Leadership**)*

이런 식으로 사울의 초창기를 전한 후, 저자는 사울 왕정의 실패의 두 번째 주요 부분(사무엘상 16 장에서 사무엘하 1 장까지)에서 지도력의 전환 문제를 다룬다.

하나님께서 레위인[제사장]의 권위가 엘리와 그의 아들들에서 사무엘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지지하셨듯이, 하나님은 왕의 권위가 사울에서 다윗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지지하셨다. 사울과 다윗이 여러 번 만나는 과정에서 사울은 하나님의 미움을 받아 마땅한 것이 분명해졌다. 그는 악령의 영향을 받아 광기에 빠져 들었다. 그는 반복해서 왕권을 남용했다. 그는 부당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 그리고 그의 생애의 마지막 무렵에 사울은 심지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죽은 자를 불러 올리게 했다. 그 결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다가 죽었다. 그러나 이 기간 내내 하나님은 다윗에게 복을 주셨다. 다윗은 결백을 유지하고 사울에 대한 겸손과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자비에 응답했다. 이런 식으로 사울과 다윗을 대조함으로써, 사무엘서 저자는 의심할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완전히 배척하시고 사울 대신에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팔즈[Doug Falls] 박사)¹⁰ 사울 왕과 다윗 왕은 매우 달랐다. 내가 보는 주된 차이점은 하나는 나쁜 왕의 전형인 반면에 다른 하나는 좋은 왕의 전형이라는 것이다. 사울은 위대한 왕이 될 것이라는 모든 외적인 기대에 걸맞았다. 그는 명문가 출신이라고

¹⁰ **Dr. Doug Falls** is Associate Pastor at StoneBridge Church Community in Charlotte, NC, and Visiting Lecturer in Practical Theology at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Charlotte.

묘사되었다. 그는 이스라엘의 어느 누구보다도 어깨 위만큼 더 컸다고 묘사되었다. 이렇게 그는 모든 외적인 기대에 걸맞았지만, 불행히도 여러 면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왕으로서 비참하게 실패했다. ... 그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보여주었다. 그들은 특히 한 성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전투에서 승리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좋은 가족은 진멸하지 않고 남겼다. 남자들, 군인들이 그렇게 했다. 그리고 사울 왕은 그것을 허용했다. ... 사무엘은 사울에게 그 결과 왕국은 그에게서 떨어질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반면에 다윗 왕은 매우 다르다. 나에게서 사무엘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또 다른 가족인 이새의 집에 가서 어떻게 했는지 보는 것은 흥미롭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다음 왕에게 기름 부으라고 사무엘을 그 곳에 보내셨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새에게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 각자를 보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실지 보라고 한다. 이새는 일곱 아들을 데려오지만, 막내 아들 다윗은 제외시킨다. 다윗은 그냥 밭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사무엘마저 막내 아들 엘리압을 볼 때 외모를 보고 믿는 함정에 빠진다. 그는 엘리압의 큰 키를 보고 그를 왕재로 여기며 “여호와와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여기 있구나!”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그 형제들 중 어느 누구도 선택하시지 않았다. 마침내 그들은 가서 막내 다윗을 밭에서 불러와야 했고, 하나님은 이 사람이 바로 그 택할 사람임을 분명히 하셨다.

3. 다윗 왕정의 지속(David's Enduring Kingship (2 Samuel 2-24)

지금까지 사무엘서가 어떻게 사무엘의 왕정 도입으로 시작해서 사울 왕정의 실패로 계속되었는지 살펴보았으므로, 이제 우리는 책의 마지막 주요 부분이 전하는 다윗 왕정의 지속을 다룰 것이다.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저자는 하나님께서 왜 사울과 그의 계보를 이스라엘의 보좌에서 거부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사울의 실패를 강조했다. 그러나 그에 비해 사무엘서에 나오는 다윗의 인물 묘사는 훨씬 더 균형 잡혀 있다. 그것은 전쟁에서의 승리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과 같은 다윗의 긍정적인 자질과 업적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다윗의 심각한 도덕적 실패와 그가 그의 집과 이스라엘에 가져온 문제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윗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크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의 왕조는 지속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로 확장되도록 인도할 것이다.

다윗 왕정의 지속에 대한 기록은 사무엘하 2-24 장에 나온다. 이것은 사무엘서에서 단연코 가장 긴 부분이고, 처음 두 주요 부분의 패턴과 아주 다르다. 그것은 세 개의 긴 부분으로 나뉜다. 첫째 부분은 사무엘하 2-9 장으로 다윗의 초기의 복들을 다루고, 둘째 부분은 사무엘하 10-20 장으로 다윗의 후기의 저주들을 다루고, 셋째 부분은 사무엘하 21-24 장으로 다윗의 통치의 지속적인 은택에 대한 요약을 제시한다.

a) 초기의 복들(삼하 2-9 장 *Earlier Blessings*)

다윗의 초기의 복들에 관한 부분은 사울이 죽은 후 어떻게 다윗이 먼저 헤브론에서 그리고 다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는지를 알려준다. 이 장들 전체에 걸쳐 하나님은 다윗이 그분께 충성하는 것에 대한 응답으로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적들을 상대로 많은 승리를 거두었다. 이스라엘 안에서 다윗에 대한 반항이 있었지만, 그에 대한 지지가 늘어나 사울과 그의 집을 섬긴 사람들까지도

지지하게 되었다. 다윗의 초기의 복들의 정점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조의 수반(首班)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다. 삼하 7:16 에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보라.

(삼하 7:16)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여기서, 사울과 그 가족에 대한 하나님의 영구적인 거부와 정반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과 나라가 보전되고 그의 왕위가 견고할 것이라고 엄숙히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이나 “영원히(히브리어로 *עלמית* [아드 올람])”를 사용하시며 이것이 참된 사실이라고 확인하셨다.

그런데 같은 사무엘하 7 장의 다른 곳(7:14)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들이 자신에게서 등을 돌리면 그들을 일정 기간 동안 징계할 것이라고 경고하셨다. 그리고 이 위협은 유다의 국외 추방에서 극적으로 실현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의 집이 완전히 끊어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약속으로 복을 주셨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이 다윗의 집은 지속될 것이었다.

b) 후기의 저주들(삼하 10-20 장 Later Curses)

이러한 초기의 복들에 이어, 다윗 왕정의 지속을 다루는 두 번째 부분은 삼하 10-20 장에서 다윗의 후기의 저주들을 전한다. 이 장들은 다윗의 최악의 왕권 남용, 즉 밋세바와 간음한 죄와 밋세바의 남편인 헷사람 우리아를 살인한 죄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잘 알려져 있다. 이러한 왕권 남용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밋세바와의 간음에서 생긴 아들의 죽음을 통해 다윗을 저주하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국에 고난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하시면서도, 다윗의 진실한 회개에 자비로 응답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고난이 닥쳐왔다. 다윗의 죄 때문에 그의 가족과 온 이스라엘은 다윗의 남은 일생 동안 고통을 당했다. 그러나 다윗의 통치의 이 시기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위한 영원한 왕조에 대한 약속을 어기지 않으셨다. 삼하 12:24-25 말씀을 들어보라.

(삼하 12:24-25 개역개정) 24 그[=밧세바]가 아들을 낳으매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25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의 왕위 이름으로 "평화의 사람"이라는 뜻이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호와는 선지자 나단을 통해 "여호와에 의해 사랑을 받는"이란 뜻의 여디디야라는 개인 이름을 지어 주셨다. 솔로몬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과 그의 왕족 계보에 계속 베풀어 질 것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c) 지속적인 은택(삼하 21-24 장 Ongoing Benefits)

다윗의 긍정적인 초기와 고난 많은 후기를 묘사한 후, 사무엘서 저자는 삼하 21-24 장에서 독자들에게 다윗의 통치의 지속적인 은택에 대한 요약물을 주었다. 많은 해석자들은 이 요약물을 사무엘서의 "부록"이라고 불렀다. 그것은 다윗의 치세 중 여러 시기에 일어난 사건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대순이 아니라 주제별로 정리되어 있다.

이 장들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그의 왕조의 안전한 미래를 영원히 확인시켜 주는 특별한 계시를 주셨음을 알게 된다. 하나님은 또한 그에게 위대한 승리를 거둔 용사들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임명하시고 그의 중보를 통해 온 나라가 용서와 치유를 얻게 하셨다. 이러한 긍정적인 업적은 다윗의 통치 말기에 나타나 책의 원래 독자들에게 지속적인 인상을 남긴다. 다윗과 그의 후손이 이스라엘에 가져온 고난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통치와 관련된 은택은 사라지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평생토록 은혜를 베푸신 것은 다윗 가문의 의로운 왕들이 여전히 이스라엘에 가져올 수 있는 여러 복을 보여주었다. 사무엘서 저자는 삼하

22:51 에서 이 주제를 잘 드러냈다. 거기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삼하 22:51 개역개정)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심이여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이 구절은 삼상 2:10 을 암시한다. 여러분은 저자가 책의 초반에 하나님께서 "그의 왕"을 높이시고 "그의 기름 부은 자"에게 승리를 주심으로써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는 하나의 확신을 기록했다는 것을 기억할 것이다. 여기 삼하 22:51 에서 다윗은 하나님은 큰 구원, 즉 전쟁에서의 승리를 통해 오는 큰 구원을 가져오신다고 말함으로써 하나의 확신을 되풀이했다.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인자(한결같은 사랑)를 베푸실" 때 "그의 왕"에게 올 것이다. 그러나 다윗의 찬양은 하나의 찬양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그는 하나님의 큰 구원과 인자(한결같은 사랑)의 수혜자가 "다윗과 그 후손"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그는 그들이 이러한 축복을 "영원히" 받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사무엘서의 구조와 내용에 대한 우리의 개요는 우리를 그 디자인의 두 번째 특징인 책의 중대 목적으로 인도한다. 저자는 원래 독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기를 바랐는가?

B. 중대 목적(OVERARCHING PURPOSE)

저자들이 사무엘서처럼 길고 복잡한 책을 만들 때, 그들은 무수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독자들에게 정보를 주고, 독자들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다양한 방식으로 그들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책을 작성한다. 사무엘서도 예외가 아니다. 사무엘서의 작은 부분들은 원래 독자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특정한 문제들을 제기했다. 그러나 동시에 사무엘서 저자는 책의 모든 작은 부분들을 하나의 통일된 중대 목적을 염두에 두고 함께 엮었다.

사무엘서 저자의 종대 목적은 여러 방식으로 요약할 수 있지만 이 강좌에서 우리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것이다.

사무엘서 저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들의 소망을 다윗의 집의 의로운 통치에 두도록 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왕정으로의 전환이 어떻게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절정에 이르렀는지 설명하였다.

이 요약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무엘서 저자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였다. 한편으로, 그는 이스라엘의 왕정으로의 전환이 어떻게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절정에 이르렀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다른 한편으로, 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다윗의 집의 의로운 통치에 두도록 하기 위해 책을 썼다. 저자의 목적의 두 측면을 분석해보자.

앞에서 말했듯이, 사무엘서는 우리가 “그 세상”이라고 부르는 것을 강조한다. 다시 말하면 사무엘서는 하나님께서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이스라엘을 이끄신 세기를 강조한다. 슬프게도,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 고대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자주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다. 저자는 이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원래 독자들에게 과거에 대한 진실하고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기록을 주는데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말할 필요도 없이, 저자가 이스라엘이 왕정 시대로 전환되는 시기 동안 일어났던 모든 일을 전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세 주요 지도자인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의 생애에 집중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결정적인 역사적 사실을 확립하기 위해 이 세 사람의 일대기를 다루었다.

우리의 목적 요약이 밝혀주는 바와 같이,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의 생애에 일어난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으로 절정을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나서야 왕정으로의 전환이 완료되었다.

다른 강좌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약들을 통해 지상에서 그분의

나라의 모든 단계를 운영하셨다는 것을 성경이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자세히 설명했다. 하나님은 아담과 노아를 통해 모든 인류와 언약을 맺으셨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다.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이 언약들은 각각 그것들이 맺어진 시대에 적합한 다른 강조점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각 언약이 이전의 언약들의 정책을 통합하면서, 그것들은 또한 이전의 정책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적용했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하나님의 은택에 의해 시작되고 지속되었다. 그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택에 대한 반응으로 인간이 감사하며 충성하는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그것들은 모두 순종에 대한 복들과 불순종에 대한 저주들의 결과를 밝히고 있었다.

대체로 해석자들은 삼하 7:1-7 에 나오는 나단의 예언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때라고 동의한다. 이 단락에 “언약(히브리어로 ברית [브리트])”이란 용어는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나단은 이 말을 다윗의 초기의 복들의 정점에서 전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의 기본 방침을 제시하였다. 게다가, 책의 끝 부분에서 사무엘서 저자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였다. 다윗이 삼하 23:5 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을 들어보라.

(삼하 23:5)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다윗이 여기서 말한 대로, 하나님은 그와 영원한 언약(히브리어로 ברית אולם [브리트 올람])을 맺으셨다. 이 언약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견고하도록" "만사에 잘 구비되었다(잘 갖추어졌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은 그의 집이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릴

것임을 **보증하는** 것이었다. 시편 89 편과 132 편에도 암시되어 있듯이, 다윗 왕조는 이 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영구적인 특징이었다.

(파임[Mr. Sherif Atef Fahim])¹¹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구속사에 큰 의의가 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장이다. ... 우리는 이 장에서 다윗의 언약이라고 불리는 것을 본다. 우리가 구세주에 대한 새로운 관점, 곧 이 구세주는 다윗의 아들이 될 것이라는 관점을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언약이다. 성경에서 "다윗의 아들"이라는 용어는 평범한 용어가 아니다. "다윗의 아들"을 볼 때마다 "왕"이라는 단어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다윗은 왕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이 장에서 그의 아들이 왕위, 곧 그 나라의 왕위에 영원히 앉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다윗의 자손 중 하나는 다윗의 보좌에서 영원히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다윗과 그의 집을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조로 세우심으로써 은택을 보이셨지만, 하나님은 또한 그들의 충성스러운 봉사를 요구하셨다. 그 결과 그들은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복과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에서 다윗의 첫 번째 왕위 계승자인 솔로몬에 관한 단서 조항을 표현한 삼하 7:14-15 을 들어보라.

(삼하 7:14-15) 14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15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시편 89 편과 132 편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에게 요구하시는 충성에

¹¹ Mr. Sherif Atef Fahim teaches at Alexandria School of Theology in Egypt.

대해 비슷한 주의를 기울인다.¹² 여기 삼하 7:14-15 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이 죄악에 빠질 때 징계하실 것을 본다. 하나님은 다윗의 집을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다시 말하면, 그들의 적들이 주는 어려움으로 괴롭히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윗과의 언약의 수립으로 새로운 시대가 찾아왔다. 여기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으신 것처럼” 다윗의 집에서 그분의 “은총(한결같은 사랑)을 빼앗으시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과 그 자손들을 이스라엘의 보좌에서 완전히 거부하셨지만, 다윗의 집에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셨다. 다윗과 그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에 가져온 고난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왕조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할 것이다.

방금 살펴본 것처럼, 저자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이스라엘이 왕정 시대로 전환되는 절정으로 제시했다. 이제 그의 중대 목적의 후반부를 논해보자. 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들의 소망을 다윗의 집의 의로운 통치에 두도록 그의 책을 썼다.

(코레아[David Correa] 박사)¹³ 사무엘서의 문학적 목적은 다윗의

¹² 역자 주:

[시 89:30-34] 30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31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32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33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폐하지 아니하며 34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시 132:10-12] 10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11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네 몸의 소생을 네 왕위에 돌지라 12 네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네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¹³ **Dr. David Correa** is an associate Professor at San Pablo Theological Seminary in Merida, Mexico and the Director of Next Institute Mexico. He also serves as Pastor of *Presbyterian Iglesia Jesus* in Progreso.

집의 불충성이 이스라엘에 가져온 고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다윗 계보의 문제점과 상관없이, 다윗 계보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저자는 하나님에 의해 다윗과 그의 집안이 통치하는 왕조로 선택되었음을 보여주고 싶었고, 그런 다음 그의 책을 통해 이스라엘이 다윗 왕조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계보에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이 강의의 앞부분에서 우리는 사무엘서 저자가 “그들의 세상”에서 원래 독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려고 과거의 “그 세상”에 대해 썼다는 것을 배웠다. 그리고 그들이 분열 왕국 시대에 살았던 바벨론 유수 기간에 살았던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 수세기에 걸쳐 하나님께서는 다윗 집의 죄 때문에 백성에게 많은 저주를 퍼부으셨다. 그들은 분열, 경제적 어려움, 질병, 전쟁에서의 패배 등을 겪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과 다윗의 집은 약속된 땅에서 추방되었다.

이러한 고통스러운 상황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심각한 질문을 던지게 했다.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들은 어디에서 도움을 청해야 하는가? 그들 중 다수는 더 밝은 날들에 대한 모든 소망을 잃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들, 다른 신들, 다른 나라들과의 동맹, 그리고 새로운 왕가들, 즉 실패한 다윗의 집을 제외한 어느 가문이든 의존했다. 그러나 사무엘서 저자는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반응은 단 하나뿐이라고 주장했다.

우선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되었다. 비록 원래의 독자들이 겪은 고난이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에게 이 일을 매우 어렵게 했지만, 저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패하지 않을 것임을 강력히 재천명했다.

하나님께서서는 초창기부터 인간의 신실한 봉사를 통해 온 땅에 대한 그분의 통치를 확립하면 역사가 궁극적인 운명에 도달할 것이라고 계시하셨다.

모세는 이 기본적인 믿음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신 언약에 대한 그의 설명을 통해 가르쳤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아담과 하와는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에덴에 있는 하나님의 동산의 경이로움을 온 세상으로 확장시키라는 임무를 받았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맺으신 언약에서 이 임무를 재확인시키셨다. 땅을 정복하고 그분의 형상들로 땅을 채우는 일은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의 특권과 책임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일에 남은 인류를 인도하도록 선택받은 지상의 유일한 민족임을 밝혔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맺은 언약에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한 국가로 만드시어 약속의 땅에 두셨다. 이 땅은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땅 끝까지 확장시킬 조국이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으신 언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 위대한 운명으로 인도할 왕가로 세우셨다.

그러나 사무엘서 저자가 그의 책을 썼을 때,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들을 믿으려고 애썼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지독한 저주에 직면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고난은 다름아닌 다윗의 집 때문에 그들에게 닥친 것이었다. 그러므로 사무엘서 저자가 그의 책의 첫 부분에서 하나님 나라의 미래에 대한 한나의 확신을 기록한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삼상 2:10 에 나오는 한나의 찬양을 다시 들어보라.

(삼상 2:10 개역개정)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한나는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았었다. 그녀는 당시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그녀가 이렇게 믿은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큰 승리를

통해 “높이시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책 전반에 걸쳐 사무엘서 저자는 그의 원래 독자들에게 하나의 예를 따를 것을 요청했다. 그들은 소망을 포기해서는 안 되었다. 그들이 직면한 시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기쁨 부어 세우신 그분의 왕을 통해 전 세계로 확장될 것이라는 확신을 새롭게 해야만 했다.

그런데, 사무엘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소망에 대해 밝히는 결정적인 단서 조항이 있다. 우리의 목적의 요약에 있듯이, 이스라엘의 소망은 다윗의 집의 의로운 통치에 두어야 한다. 저자는 하나님 나라의 미래가 다윗의 집에 있고 다른 어떤 데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외에도 하나님은 이 영광스러운 미래가 다윗의 집의 의로운 통치에 있다고 정하셨던 것이다.

우리가 이미 언급했듯이, 저자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이 이스라엘이 왕정 시대로 전환되는 정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 언약은 다윗의 후손들이 무엇을 하더라도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아무리 멀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조를 다른 왕조로 대체하시지 않을 것임을 확립하였다. 다윗의 후손들이 잇따라 실패한 것이 원래의 독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가져왔는지를 유념하면, 사무엘서 저자가 이 확신을 강조해야만 했던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가장 신실한 사람들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자손 중 어느 누가 이 다윗 왕가가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더 많은 고통을 당하도록 인도할 것이라고 어찌 생각할 수 있었겠는가? 그러나 사무엘서 저자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나라의 왕들에게 의지하고 그들의 거짓 신들을 섬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스라엘의 다른 왕들, 곧 사울의 자손도, 북 왕국의 많은 왕들도, 그리고 다윗의 집에서 나온 왕들을 제외한 그 어느 누구도,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물론 다윗 왕조에 대한 이러한 확신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에서 나온

어느 왕을 통해서라도 자기 백성에게 복을 부어 주시고 그분의 나라를 땅 끝까지 확장하시겠다는 뜻은 아니었다.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 사무엘서 저자는 다윗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을 때 다윗 자신도 하나님의 저주에 떨어졌음을 분명히 했다. 더구나 저자와 원래 독자들은 다윗의 후손들의 실패 때문에 왕국이 분열되고 국외로 추방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 닥쳤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저자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다윗의 자손, 곧 공의로 다스리는 다윗의 자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자가 삼하 23:3-5 절에서 이스라엘의 소망을 계시한 방식을 들어보라. "다윗의 마지막 말"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을 읽는다.

(삼하 23:3-5 개역개정) 3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4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 풀 같으니라 하시도다¹⁴ 5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갈지

¹⁴ 역자 주: 삼하 23:4 은 시행의 간결성으로 인해 구문 분석이 쉽지 않다. 새번역과 우리말성경과 NIV 와 CSB 는 2 개의 이미지로 구분하고, 개역개정과 ESV 와 NLT 는 3 가지 이미지로 구분하였다.

WLC: וְכִאֲוֹר בֶּקֶר! זָרַח-שֶׁמֶשׁ בֶּקֶר לֹא עֲבֹת מִנְגָה מִמֶּטֶר דְּשָׂא מֵאֶרֶץ:

YLT: And as the light of morning he riseth, A morning sun -- no clouds! By the shining, by the rain, Tender grass of the earth!

새번역: 구름이 끼지 않은 아침에 떠오르는 맑은 아침 햇살과 같다고 하시고, 비가 온 뒤에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햇빛과도 같다고 하셨다.

우리말성경: 구름 한 점 없는 아침에 떠오르는 아침 햇살 같을 것이다. 비 갠 뒤의 햇살이 땅에 새싹을 돋게 하는 것 같을 것이다.

NIV: he is like the light of morning at sunrise on a cloudless morning, like the brightness after rain that brings the grass from the earth.

CSB: is like the morning light when the sun rises on a cloudless morning, the glisten of rain on sprouting grass.

개역개정: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 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여기서 다윗은 자신이 해야 할 말의 확실성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이 말은 그의 의견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은 “이스라엘의 반석”
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리고 다윗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복을 그들에게 가져올 왕을 갈망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그가 표현한 것처럼, 그러한 왕은 어둠의 긴 밤 후에 “아침 빛”과 같고,
하늘에 구름이 없을 때 “빛나는 해”와 같고, 식물이 번성하게 만드는 “비”와
같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디서 그러한 왕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다윗이 대답하였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지 아니하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다윗의 집을
떠나서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복들이 있을 가능성이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복들은 다윗의 집의 어느 대표자를 통해서라도 오는 것이 아니었다. 다윗의
집에서 이스라엘을 그들의 고통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복으로 인도할 수 있는
왕은 한 가지 유형뿐이었다. 다윗이 말한 대로, 그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쉬운성경: 그런 너는 새벽 빛과 같고, 구름 끼지 않은 아침과도 같으며, 비 온 뒤의
햇살과도 같고,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햇살과도 같다.

ESV: he dawns on them like the morning light, like the sun shining forth on a cloudless
morning, like rain that makes grass to sprout from the earth.

NLT: is like the light of morning at sunrise, like a morning without clouds, like the gleaming
of the sun on new grass after rain.

영블러드(REBC 3, 592)는 여기서 의로운 왕의 통치가 전반절에서 햇빛의 유익에, 후반절에서
비의 번성하게 하는 효과에 비유되었다고 설명하며, 이와 비슷하게 시편 72 편도 의로운 왕이
해(72:5)처럼 길게 지속될 것이고 땅을 적시는 비(72:6)와 같을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후반절의 “광선, 광채”는 삼하 22:13 에 비추어 볼 때 비가 온 후에
비치는 햇빛이 아니라 뇌우를 동반하는 번개와 관련이 있다고 설명하고 “brightness after rain”
대신에 “brightness associated with rain”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다고 지적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이어야 한다. 오직 의로운 왕만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비의 경이로움 속으로 다시 이끌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 부으시는 것에 대하여 이스라엘이 가졌던 유일한 소망은 다윗의 의로운 아들의 통치였다.

지금까지 사무엘서의 서론을 다루며 우리는 책의 배경과 디자인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측면을 탐구했다. 이제 우리는 이 강의의 세 번째 주요 주제인 사무엘서의 기독교인의 적용을 살펴볼 것이다.

IV. 기독교인의 적용(CHRISTIAN APPLICATION)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사무엘서 저자는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분열 왕국의 시대나 바벨론 유수 기간 중 하나님의 심판 아래 고통을 받고 있던 시기에 그의 책을 썼다. 그리고 그는 주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백성으로 하여금 다윗의 왕가에 소망을 두도록 지도할 수 있도록 그것을 디자인했다. 물론, 저자의 목적을 인식하는 것은 우리가 그의 책의 많은 특징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사무엘서의 원래의 지향점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성경 연구자들은 너무나 자주 그것을 자신들의 기독교 신앙에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는 사무엘서를 처음 받은 사람들과는 다른 상황에 살고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으로 하나님께 묶여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지상의 모든 나라에 퍼져 있다. 그렇다면 사무엘서는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신약의 신자들로서 우리는 사무엘서를 적용할 때 어떤 길을 따라가야 하는가?

사무엘서의 기독교인 적용에 관한 이러한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나 시간 제한상, 책의 원래의 의미를 우리의 신약 신앙과 연관시키는 두 가지 성경적 가르침만 언급할 것이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들에 대한 성경적 개념을 고찰할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탐구할 것이다. 그럼 먼저 하나님의 언약들을 살펴보자.

A. 하나님의 언약들(GOD'S COVENANTS)

이 강의의 앞부분에서 우리는 사무엘서 저자가 하나님께서 성경의 역사를 통해 이미 세우신 하나님의 다섯 가지 주요 언약들에 익숙하다고 언급했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노아를 통해 모든 인류와 맺으신 언약들, 그리고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과 맺으신 특별한 언약들이었다. 저자는 또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또 다른 언약, 즉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이 끝난 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으실 갱신의 언약을 예언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우리는 자주 이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묘사한다. 이 미래의 언약은 분열 왕국 시기에 호 2:18 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되었다. 나중에 사 54:10 과 겔 34:25; 37:25 과 같은 구절에서도 언급되었다.¹⁵

1. 사무엘의 왕정 도입(Samuel's Prelude to Kingship, 1 Samuel 1-7)

사무엘의 첫 번째 주요 부분(사무엘의 왕정 도입)은 "언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저자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맺으신 언약의 관점에서 이 부분의 모든 사건을 제시했다. 간단히 말해서, 모세의 언약은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나라로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은택이란 역학적 원리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것은 또한 모세의 율법을 따르도록 나라에 요구된 인간적 충성에 대한 조항들을 자세히 설명한다. 그리고 그것은 불순종과 순종에 대한 반응으로 나라에 닥칠 저주와 복의

¹⁵ [호 2:18] 그 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사 54:10]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겔 34:25]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 들에 평안히 거하며 수풀 가운데에서 잘지라

[겔 37:26]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결과에 주의를 기울였다.

다음 강의들을 통해 알게 되겠지만, 사무엘의 왕정 도입 부분에서 저자는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키우시는 데 있어서 보이신 하나님의 은택에 특별히 집중했다. 그는 또한 인간의 충성에 대한 모세의 율법의 표준, 특히 예배에 대한 모세의 규례를 옹호했다. 그리고 그는 이 규례들에 대한 불순종과 순종에 따른 저주와 복의 결과를 자세히 설명했다. 저자는 엘리 가문의 불순종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했는지 그리고 엘리 가문의 불순종이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에 저주를 가져왔는지를 설명했다. 그는 또한 한나와 사무엘이 예배에 대한 모세의 규례들을 순종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임했는지 그리고 한나와 사무엘의 이러한 행위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에 복을 가져왔는지를 자세히 설명했다.

2. 사울 왕정의 실패(Saul's Failed Kingship, 1 Samuel 8-2 Samuel 1)

이 외에도, 저자는 책의 두 번째 주요 부분(사울의 왕정 실패)에서도 모세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에 호소했다. 이어지는 강의들에서 더 자세히 논의할 것이지만, 간단히 말해, 책의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요청을 허락하심으로써 그분의 은택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다. 저자는 또한 인간의 충성에 대한 요구의 초점을 넓히며 예배에 대한 모세의 규례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의 왕권 남용에 모세의 규례들도 포함시켰다. 여기서 저자는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가 그의 불순종에 대한 저주임을 밝히고 사울의 행위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에 저주를 가져왔는지를 기록했다. 저자는 또한 겸손한 순종을 한 다윗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들을 강조하고 다윗의 행위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에 복을 가져왔는지를 묘사했다.

3. 다윗 왕정의 지속(David's Enduring Kingship, 2 Samuel 2-24)

사무엘서의 세 번째 주요 부분(다윗 왕정의 지속)에서 저자는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강조했다. 이 언약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그의

왕조의 새로운 중심성을 드러내기 위해 모세와 맺은 자신의 언약의 역학적 원리를 재정비하셨다. 다음 강의들에서 더 분명하게 볼 수 있을 것이지만, 저자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조로 세우심으로써 이스라엘에게 큰 은택을 보이셨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그래서 저자는 예배에 대한 모세의 규례들과 왕권 남용을 막기 위한 모세의 규제들이 요구하는 인간의 충성에 계속 집중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가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에 따른 결과를 이행하시는 방식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그 때부터 다윗과 그의 집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모두를 대표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이 받는 저주와 축복은 다윗의 집의 불순종과 순종에 크게 좌우되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다윗과 맺으신 언약의 역학적 원리에 대한 저자의 관심은 사무엘서와 기독교 신앙 사이에 본질적인 연결 고리를 제공한다. 다른 강좌들에서 이러한 연관들을 더 자세히 설명했지만, 여기서 잠깐 그것들을 요약하는 것은 도움이 될 것이다. 신약의 가르침에 따르면,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성경의 역사에서 담당하시는 특별한 역할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하나님의 이전 언약들의 역학적 원리를 재정비한다. 다윗의 보좌의 마지막이자 의로운 계승자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끔찍한 고난의 시기에 베푸신 가장 큰 은택의 실증이었다. 예수님께서서는 고난의 생애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인간의 충성에 대한 모든 표준을 성취하셨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완벽한 순종 때문에 자신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 아버지로부터 한없는 복을 받으셨다.

(미카일[Emad A. Mikhail] 박사)¹⁶ 하나님께서는 삼하 2:7 에서 다윗에게 엄청난 의미를 지닌 위대하고 멋진 약속을 하셨다. 이 약속은 그 이후로 모든 구속사를 형성했다. 이 약속은 다윗의

¹⁶ Rev. Dr. Emad A. Mikhail is President of Great Commission College in Egypt.

혈통에서 나와 돌로 만든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루어진 성전, 곧 교회를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게 했다. ... 다윗의 자손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다윗의 나라를 영원히 다스리고 계신다. 따라서 사무엘하 7 장의 약속은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구약의 나머지 부분과 신약의 관점을 형성했다. 신약은 결정적인 경우에 몇 번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무엘서가 이스라엘 지도자인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언약 역할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새 언약의 완벽한 중보자로 인정해야 한다. 사무엘서는 인간의 충성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에 불순종하거나 순종하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많은 예를 보여준다. 그러나 다윗의 위대한 아들로써 예수님은 사무엘서에 나오는 모든 불순종의 예와는 완전한 대조를 이루신다. 더욱이, 예수님의 비길 데 없는 완전성은 사무엘서에 나오는 순종의 모든 예를 훨씬 능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은 우리에게 모든 소망을 예수님께 두라고 요구한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에서 쏟아 부으실 영원한 저주에서 모든 참된 신자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에서 베푸실 영원한 복을 모든 참된 신자에게 주실 것이다.

더 나아가, 사무엘서는 또한 모든 고대 이스라엘 사람의 일상 생활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언약의 역학적 원리를 지적하고 있다. 비슷한 방식으로 신약 성경은 새 언약의 역학적 원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일상 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사무엘서에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택을 보여주는 모든 모습은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교회에 은택을 보여주는 방식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준다. 사무엘서에 나오는 인간의 충성에 대한 모든 요구 사항은 신약 성경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충성하도록 요구하는지를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그리고 사무엘서가 이스라엘에 닥친 일시적인 저주와 복을 전할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비할 데 없는 지혜로 어떻게 자신의 교회를 징계하기 위한 일시적인 저주와 자신의 교회에 보상을 주기 위한 일시적인 복을 내리시는지를 돌아볼 수 있다. 그러므로 신약의 가르침에 비추어 사무엘서를 연구할 때,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일상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갖는다.

사무엘서의 기독교인의 적용은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많은 부분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성경의 주제가 사무엘서를 오늘의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B. 하나님의 나라(KINGDOM OF GOD)

우리가 말했듯이, 사무엘서 저자는 하나의 중대 목표를 염두에 두고 그의 책의 모든 면을 구성했다. 그는 이스라엘에게 다윗의 집의 의로운 통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망하라고 촉구했다. 안타깝게도, 많은 현대 기독교인들은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무엘서의 이 두드러진 주제를 우리 삶에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나 실제로 그리스도와 1 세기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한 가지 사실을 매우 분명히 했다. 그것은 신약의 믿음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반대로, 신약에는 사무엘서 저자가 그의 원래 독자 앞에 개진했던 소망이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성취된다는 것이 매우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이것이 어떻게 사실인지 알기 위해, 우리는 사무엘서의 시대와 신약 성경의 시대 사이에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을 명심해야 한다. 역대기, 에스라, 학개, 스가랴와 같은 책들은 주전 538 년경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대표자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음을 알려준다. 그들은 다윗의

자손인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고 확장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는 큰 기대를 가지고 돌아왔다. 그러나 이 책들은 스룹바벨이 공의로 다스리는데 실패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의 지도력 아래 이룬 몇 가지 초기 업적 후에는 그에 대해 더 이상 아무 것도 알지 못한다.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하나님을 외면했고,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많은 저주를 퍼부으셨다. 하나님의 백성은 대부분 약속의 땅 밖에 남아 있었고, 귀환한 소수의 백성은 이방 나라들과 그들의 거짓 신들의 폭정에 시달렸다. 무려 5 세기 이상 동안 바벨론 사람, 매대와 바사 사람, 헬라 사람, 그리고 로마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렸다. 다윗의 의로운 아들은 나타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지상에서 거의 사라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이 수세기 동안 항상 신앙을 유지한 남은 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역사의 마지막 단계인 말세에 다윗의 의로운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의로운 아들은 죄에 대한 마지막 속죄를 이루고, 하나님은 그를 일으켜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다윗의 보좌에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으로 확장하고 영원한 심판과 복을 가져올 것이다.

물론 이 약속은 기독교 복음, 즉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의 핵심이다. 500 년이 넘는 기다림 끝에, 다윗의 의로운 아들인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땅 끝까지 확장하시는 이스라엘의 의로운 왕이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중심적인 가르침은 신약의 저자들의 마음에 특히 두드러졌다. 분명히 이 저자들은 예수님을 사무엘서가 다윗의 집에 두었던 모든 소망의 성취로 보았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그리스도께서 사무엘서의 사건들을 성취하신 것을 여러 번 명시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사무엘서의 첫 번째(사무엘의 왕정 도입)

부분의 내용을 두 차례 사용했다. 눅 1:46-55 에서 우리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읽는다. 눅 1:51-53 에서 마리아가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을 들어보라.

(눅 1:51-53 개역개정) 51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흘으셨고 52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53 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 손으로 보내셨도다

많은 해석자들은 마리아의 노래의 이 부분을 포함한 여러 부분이 삼상 2:1-10 에 나오는 사무엘의 탄생에 대한 한나의 찬양의 노래와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적들에게 저주를 내리시고 자신의 신실한 백성에게 복을 주심으로써 어떻게 새로운 날을 시작하셨는지를 축하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의 탄생을 통해 같은 일을 하고 계셨음을 축하했다. 비슷한 방식으로, 누가복음은 또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묘사할 때 사무엘의 왕정 도입 부분을 시사한다. 눅 2:52 에서 누가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썼다.

(눅 2:52 개역개정)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제 삼상 2:26 을 들어보라.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는다.

(삼상 2:26 개역개정)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엘리와 그의 아들들에게 저주를 내리실 때의 사무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누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의 방탕한 지도자들과 대조적으로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의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했다.

누가는 또한 사무엘서의 두 번째 주요 부분(사울 왕정의 실패)의 내용을 사용해 다윗의 의로운 아들인 예수님께 주의를 기울였다. 눅 6:1-5 에서 누가는 어떻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추궁하며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겼다고 비난했는지를 기록했다. 눅 6:3 에서 예수님은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될) 진설병을 먹던 때의 다윗과 자신을 비교하시며 자기의 행동을 변호하셨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사무엘 21:1-6 에서 볼 수 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저주를 내리셨지만, 다윗에겐 그의 결백에 대한 복을 주셨다. 그래서 누가는 사무엘서에 대한 예수님의 언급을 지적하며 예수님이 다윗의 의로운 아들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누가는 또한 사무엘서의 세 번째 주요 부분(다윗 왕정의 지속)의 내용을 행 2:14-15 에 사용했다. 여기서 그는 오순절 당일 베드로의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 행 2:30-31 에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유를 설명했다. 그가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을 들어보라.

(행 2:30-32 개역개정) 30 그는[=다윗은]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31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32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

여기 베드로의 말은 삼하 7:12-13 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가리켰다. 삼하 7:12-13 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하셨다.

(삼하 7:12-13 개역개정) 12 네 수한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3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यो]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누가가 지적했듯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여 자신의 하늘 보좌에 앉으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으로 확장할 운명이 있는 다윗의 의로운 아들이라는 증거였다. 다른 신약의 저자들과 마찬가지로, 사무엘서에 대한 누가의 모든 언급은 한 가지 주제를 강조했다. 그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젠가 땅 끝까지 확장되길 바라는 이스라엘의 소망을 성취하는 다윗의 의로운 아들이라는 점이다.

(통[Stephen Tong] 박사)¹⁷ 미래의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다윗은 유다 지파 출신이고 유다 지파는 야곱이 죽기 전에 축복할 때 “규(왕들의 상징)가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된 지파이기 때문이다. 이 예언은 성취될 것이다. 유다 지파 중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이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분은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과 은혜와 구원을 모두 이루셨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구약에서 약속하셨고 인간이 율법을 통해서 얻을 수 없고 오직 은혜로만 얻을 수 있는 구원을 베푸시려는 그분의 뜻을 이루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강좌에서 자세히 보았듯이, 누가를 비롯한 모든 신약의 저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소망을 갑자기 혹은 단 한 번에 이루시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다. 오히려 신약의 저자들은 예수님께서 세 가지 단계로 하나님 나라가 지상에 임하게 하신다고 설명했다.

¹⁷ **Rev. Dr. Stephen Tong** is a renowned Chinese evangelist and theologian, promoter of Reformed Evangelistic Movement, and the founder of the Stephen Tong Evangelistic Ministries International (STEMI), Reformed Evangelical Church and Seminary in Indonesia.

예수님은 그의 초림으로 그의 나라를 개시하시면서 사무엘서의 소망들을 성취하시기 시작했다. 예수님은 교회 역사 전반에 걸쳐 그의 나라가 지속되는 동안 그의 의로운 통치를 계속 확장하고 계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나라가 완성될 때 영광 중에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벽하게 이루실 것이다. 다윗의 아들로써 그리스도의 의로운 통치에 대한 이 삼중적 관점은 기독교 신앙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나라의 세 단계 모두에 비추어 사무엘서를 적용해야 한다.

1. 개시(Inauguration)

첫째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의 개시를 되돌아보면서 사무엘서를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 예수님께서서는 지상 사역 중에 인간의 충성에 대한 모든 요구 사항을 지키셨고,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한 영원한 구원을 확보하셨다. 예수님의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의 영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그는 승천하시어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

하나님의 나라의 개시를 통해 예수님께서서는 사탄의 힘을 파괴하기 시작하셨고, 온 세상 사람들이 사탄의 손아귀에서 구출될 수 있는 길을 여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하늘 보좌에서 다가올 세상의 복에 대한 계약금으로 그의 교회에 그의 영(=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무엘서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새롭게 하라고 촉구하는 것을 읽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가 다윗의 위대한 아들로써 그분의 나라의 개시를 통해 이미 성취하신 일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한다.

2. 지속(Continuation)

둘째로, 우리는 또한 사무엘서를 교회 역사 전반에 걸쳐 그리스도의 나라가 지속되는 것에 적용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2 천년이 넘는 세월 동안 예수님께서서는 하늘 보좌에서 날마다 그의 의로운 통치를 연장해 오셨다. 그리고 매 순간 그분은 사무엘서 저자가 다윗의 집의 의로운 통치에 두었던 소망을 점점 더 많이 이루어 오셨다. 복음 전파를 통해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적들을 계속 물리치신다. 그는 전 세계의 수많은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을 어둠의 왕국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교회의 역사 내내 계속해서 같은 일을 하실 것임을 확신할 수 있다.

사무엘서 저자는 낙담하게 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원래의 독자들에게 다윗의 집의 의로운 통치에 소망을 두도록 촉구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지속되는 동안 그리스도의 성공을 향해 우리 마음을 돌려야 한다.

3. 완성(Consummation)

마지막으로, 신약 성경은 또한 우리가 사무엘서를 적용할 때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셔서 그분의 나라를 완성하실 일에 우리의 주의를 기울이도록 가르친다. 우리는 과거와 현재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운 통치의 성취를 위해 미래를 바라본다.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원수는 영원한 저주 아래 떨어질 것이고,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새로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 것이다.

어떤 식으로든 사무엘서의 모든 부분은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의 의로운 통치를 통해 땅의 갱신에 대한 그들의 소망을 되찾으라고 촉구하기 위해 디자인되었다. 이런 이유로, 사무엘서의 모든 부분은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창조 세계 전반에 걸쳐 확립하실 의로운 통치에 대한 우리의 소망을 새롭게 하라고 촉구한다.

V. 결론(CONCLUSION)

사무엘서 서론을 다룬 이번 강의에서 우리는 역사적 배경을 살피며 책의 저자와 연대와 역사적 상황에 대해 알아보았다. 우리는 또한 사무엘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윗의 집의 의로운 통치에 대한 소망을 새롭게 하라고 촉구하기 위해 어떻게 디자인되었는지도 주목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무엘서가 하나님의 언약들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강조하는 것을

기독교인이 어떻게 적용하여 새 언약의 완벽한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임하게 하실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강화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잃었을 때, 하나님은 먼저 옛날 자기 백성에게 사무엘서를 주셨다. 우리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 우리도 자주 소망을 잃게 된다. 그러나 사무엘의 저자는 이스라엘에게, 그들을 산만하게 하는 모든 골칫거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할 것이라는 확신을 얻으라고 권면했다. 사무엘서 저자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런 방향으로 인도했는지 알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에서 모든 골칫거리를 떨쳐버릴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다윗의 의로운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자기 보좌에 앉히셨다. 매일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더욱 더 확장하신다. 사무엘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의 삶에 행하신 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를 확신시킨다. 그리스도는 영광 중에 재림하셔서 땅 끝까지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의 경이로움 속에서 그와 함께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